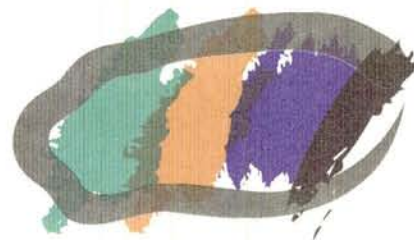


제주 풍경에 관한 일러스트레이션

김 춘 숙





기간 : 2004. 8. 13(금) ▶ 8. 19(목) | 장소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제1갤러리 | 초대일시 : 2004. 8.13(금) 오후 6시

2004. 7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주풍경에 관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연구

A Study on the Illustration of a Landscape in Jeju

지도교수 유동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김춘숙

제주풍경에 관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연구

지도교수 유동관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4년 7월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김춘숙

김춘숙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풍경에 관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연구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그 면적이 서울의 약 3배인 1847.8km²이며 월드컵을 비롯한, 유엔환경회의(UNEP), 아시아금융 총회(ADB), 아시아관광 연차 총회(PATA) 등이 개최되었으며 평화의 섬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가고 있다. 또한 천혜의 자연 환경은 년 간 약 5백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케 했다.

현재, 제주는 국제 자유 도시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개발을 해 나아가고 있다. 관광지 건설과 계획에 앞서 제주인이 보는 제주의 상징적 색채를 조사한 결과 녹색, 푸른색, 검정색, 갈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풍경에 관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연구』에서는 제주의 풍광과 더불어 제주인이 보는 상징적 색채를 다각적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다.

2. 연구 방법

아름다운 경치나 관광지로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 하여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를 하여 사실적 표현으로 묘사했으며, 재료는 캔버스에 아크릴 염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제주풍경의 주가 되는 상징적 색채인 녹색, 푸른색, 검정색, 갈색으로 분류하여 그 대상을 찾아 표현 하였다.

본론

제주는 아열대성 기후로 온난 다습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길어 건강한 초원과 녹음을 더 오래 동안 볼 수 있기도 하다.

한편, 제주의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은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질은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 질암, 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나 기생 화산에서 분출한 화산 쇄설암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일부 점사질 토양을 제외하면 대부분 흑갈색의 화산회토로 덮여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제주도는 자연이 주는 녹색 숲과 초원, 바다와 하늘에서 느끼는 푸르름 그리고 지형적 지질학적 관

점에서 관찰되는 갈빛과 검정빛들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살아 있는 풍경화를 감상하게 해 준다.

1.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제주의 녹색 풍경

제주는 너른 초원과 싱그럽고 건강하게 자라는 숲 속의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섬이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는 끝없는 벌판을 가로질러, 가고 또 가도 녹색 초원과 숲만이 시야에 펼쳐지는 곳이 많다. 그래서 많은 제주인들은 제주의 상징색을 녹색으로 보기도 한다.

2. 푸르름에 둘러싸인 제주

해안선을 따라 가보면 어디를 가도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계절과 기후에 따라 바다의 색은 각기 다르다. 오랜 시간 제주에 머문 사람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바다와 오름에서, 녹색 초원에서 보는 하늘 또한 제주인에게 있어 보다 넓은 곳을 향한 꿈과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3. 용암에 묻어난 제주의 검정 빛깔

용암이 분출하여 생긴 섬 제주. 땅으로 돌출된 검정빛 바위들은 사계절 어느 순간과도 조화를 잘 이룬다. 제주에서 돌은 삼다 중 하나. 그러기에 그 쓰임도 다양하다. 가옥의 울타리, 묘담, 또는 텃밭을 일구며 수 없이 나오는 돌들은 바람으로부터 밭을 보호하고 치우는데도 한몫하여 담을 이루었다. 이런 까닭으로 제주인들은 검정빛에 친숙하다.

4. 제주의 훈이 베인 갈 빛 서정

제주에서는 튀지 않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가을의 오름과 한여름을 지나 누런빛에서 갈 빛으로 물드는 역새, 또 농가나 어촌의 가옥에 이어진 역새 지붕 그리고 화산회토의 그것과 용암의 알갱이라고 하는 송이며 예로부터 즐겨 입었다던 갈 옷. 그것에서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림1] 제주의 역사와 오름 - 「**평화로운 가을**」

제주는 사계절 동안 어디를 가나 역사들과 오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역사와 더불어 바라보는 오름은 모든이에게 위안을 줄 것이며 평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계절에 따라 그 빛들이 색을 달리한다. 그러나 여름날 초원 속의 녹색빛 때도, 가을이나 겨울의 갈빛일 때도 역사와 오름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 갈색빛 늦가을의 서정을 안겨 주는 오름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가 온다.

[그림2] 가문동 해안도로 - 「**휴식의 연속**」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쪽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빼어난 바다 풍경과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최근 카페와 펜션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쉼터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바다와 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그런 곳이 제주에는 여러 곳이 있다. 가문동 해안길은 목가적인 풍경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위로는 한라산을 볼 수 있고 아래로는 옥빛 바다 길 옆을 향해 펼쳐진 연두빛 초원은 제주의 상징적 빛이 녹색임을 가감 없이 표현해 준다.

[그림3] 성읍 민속촌 - 「**옛 정취**」

남제주군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인의 옛 생활 모습을 엿 볼 수 있는 곳이다. 갈빛의 역사로 이영을 엮어 이은 제주의 전통초가와 흔히 볼 수 있는 검점빛의 돌무덤 그리고 토양에서 느끼는 자연의 갈색은 옛 제주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그림4] 성읍민속촌의 수레 - 「**출발을 위한 준비**」

통나무를 쌓아 놓은 수레가 정겹다. 사철 푸르름을 볼 수 있는 제주, 사철나무 울타리와 누른 풀빛의 조화 그리고 갈색톤의 통나무와 수레는 겨울을 향한 준비를 서두르는 듯 하다.

[그림5] 섭지코지 - 「**기다림**」

제주시에서 동남향으로 드라마 '울인'의 촬영지가 있어 최근 들어 관광지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앙 해수욕장과 성산일출봉이 근접해 있으며, 섭지코지에서 보는 일출 또한 장관이다. 초록빛 초원이나 바다 역시 태양빛의 과다나 그 밖의 기상조건에 따라 같은 곳이라도 여러가지 색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척 화창한 날 몽게구름이 피어 오르는 정오 즈음 바다를 바라 보았다. 그 바다는 그 어느날 보다도 더욱 질푸르게 느껴졌고 풀빛은 노오란 연두빛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발하고 있었다.

[그림6] 성산일출봉의 등산로 - 「**여유**」

제주의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광지로서 으뜸으로 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일출봉으로 오르는 길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와 우도는 매우 아름답다. 성산일출봉에 올라 내려다 보는 바다는 인간을 상념들로 채우게 한다. 돌계단을 따라 오르고 오르며 잠시의 휴식을 위해 쉼터에 앉아 내려다 보는 바다는 평화롭기 그지 없다. 때로는 옥빛으로 때로는 질푸른 남빛 물결이 어느 때는 흰빛 잉어 떼의 움직임 처럼 반짝이는 물빛이 아름답기 그지 없다.

[그림7] 신양해수욕장 - 「겨울서정」

남제주군에 위치해 있으며, 섭지코지와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다. 찾는 이 없는 해안선. 돌담과 통나무 만이 지난 여름을 회고하는 듯 하다. 얇은 바다 물빛이 흰 모래에 투영되어 옥색빛을 발하고 있다.

[그림8] 제주의 유채밭 - 「유채가 보이는 바다」

섭지코지의 유채밭 풍경으로 제주의 봄을 대변한다. 바다 건너에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섭지코지의 유채. 노오란 유채꽃이 흐린 날의 성산의 녹빛과 쓸쓸히 느껴지는 바다의 색들을 감싸 안는 듯 하다. 바다는 이렇게 여러 색으로 우리에게 다가 온다.

[그림9] 비양도 - 「비양도」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서부관광도로를 타고 약 40분 정도를 가다 보면 협재와 괄지 해수욕장이 나오며, 바다를 향해 보면 소박하고 아름다운 비양도가 보인다. 협재와 괄지해수욕장에서 바라다 보는 비양도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소박한 여촌 풍경을 연상케 한다. 흰 모래에 비춰진 바다는 우리에게 에머랄드 빛 물결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10] 행로(1118 번 도로) - 「행로」

봄이면 들은 물론 공터라면 주택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유채꽃. 녹색 이정표와 노오란 유채꽃이 제주임을 실감나게 하고 여행객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주에 와 있는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제주는 관광지에 걸맞게 어디로든 길이 쪽쪽 뻗어나 있다. 봄이면 노란 유채가 여행객을 반기고 머지않아 곧 연두빛을 발해 숲이나 초원과 연계하게 된다.

[그림11] 애월의 등대 - 「항수」

제주의 바다는 항구나 포구 어디를 가도 길을 밝혀 주는 바다 지킴이가 있다. 등대는 불빛도 밝혀 주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유라는 마음의 빛도 밝혀 주는 것 같아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 구름이 대이동을 서두르고 있는 아침, 포구에 들렀다. 에머랄드 빛 바다까지 구름에 출렁이는 듯 했다. 검은빛 암석이 비춰진 부분은 얇은 바다이건만 검푸른 빛을 자아낸다.

[그림12] 산록 도로 - 「봄의 소리」

어느 날 아침, 여유를 즐기려 드라이브를 하였다. 길가의 들풀과 꽃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은 봄의 소식과 함께 내게 작은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겨울잠을 잔 관목들이 봄기운을 받아 가지개를 켜는 듯 하다. 겨울 공기가 채 가시기 전 숲은 초록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림 13] 벚꽃길 - 「**숲의 조화**」

제주시 아라동에 소재해 있는 제주대학교 옆의 제대아파트의 버스정류장을 벚꽃과 함께 표현했다. 이 곳은 봄이면 두어 정거장 길이의 분홍 빛 꽃길이 많은 관광객을 부르고 있다. 이른 아침 그 꽃길을 걷노라면 천국이라도 온 듯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게 된다. 벚꽃은 꽃잎이 진 후 잎새가 피어난다. 짧은 시간 화려하게 핀 꽃잎들이 녹색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초록빛 물결은 자연 속에 우리가 하나라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그림 14] 오름,역새 그리고 가야할 길 - 「**가야 할 길**」

제주의 자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뽐내지 않는 소박하고 너그러운 자태를 지닌 오름들, 그리고 거센 바람 속에서도 곳곳이 생명력을 키워가는 역새들... 그 속에서 인간이라면 꼭 가야만 하는 마지막 안식처... 가을날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좀더 겸허 하게 만들지 않을까 한다.

[그림 15] 바닷돌과 태왁 - 「**해녀의 삶 속에서**」

섬 어디를 가나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바위들 그것은 바다내음과 더불어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검은빛 바위에 놓여 있는 태왁은 해녀의 삶 속에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그림 16] 염색 갈천 말리기- 「**갈옷을 위한 준비**」

제주에는 「조낭정신」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옛 조상들의 절약정신을 의미한다. 척박한 삶의 터전 속에서 그들은 흰 천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손수 지어 입었다. 갈옷에 스며 있는 빛깔은 곱진 않지만 투박하고 거친 듯 하면서 정이 있는 제주인들의 색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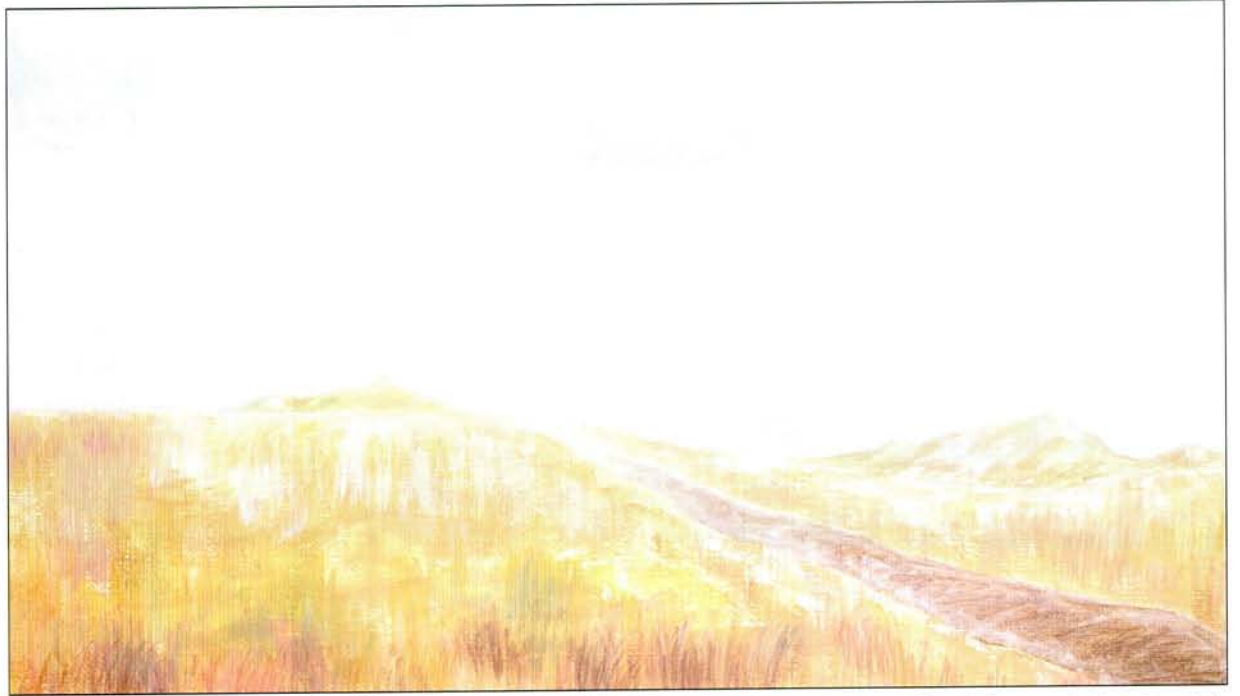
결론

제주를 그리기로 했다. 무엇을 그릴지 고민도 많이 했다. 바람을 쐬다고 이곳저곳 드라이브를 하며 참 좋았던 그 많은 곳도 문득 어떤 곳을 그릴지 망설여졌다. 그야말로 휘 돌아 다녔다. 제주의 색이 한눈에 들어 왔다. 16년간 살아온 제2의 고향. 푸른 하늘과 바다, 너른 초원과 울창한 숲, 그리고 향토색 짙은 풋풋한 갈빛, 산과 들, 해안에 널려 있는 검은 빛 바위들..... 그래서 제주의 상징 색 중에 오르는 대표 색들.....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이런 자연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훼손되어 가고 있다. 제주의 색을 지킨다는 것은 자연을 지킨다는 의미도 된다.

보고 느끼는 색을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붓을 놓고 보니 좀더 다양한 소재와 색의 분류에 의한 그룹화가 아쉽고 조형적 측면이나 표현에서 좀더 다양한 기법을 사용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림1] 계절에 따라 그 빛들이 색을 달리한다. 그러나 여름날 초원 속의
녹빛일 때도, 가을이나 겨울의 갈빛일 때도 역사와 오름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 갈색빛 늦가을의 서정을 안겨 주는 오름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이
름으로 다가 온다.



32×18cm 평화로운 가을



40×31cm 휴식의 연속

[그림2]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바다와 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그런 곳이 제주에는 여러 곳이 있다. 가문동 해안길은 목가적인 풍경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위로는 한라산을 볼 수 있고 아래로는 옥빛 바다 길 옆을 향해 펼쳐진 연두빛 초원은 제주의 상징적 빛이 녹색임을 가감 없이 표현해 준다.

[그림3] 갈빛의 억새로 이영을 엮어 이은 제주의 전통초가와 흔히 볼 수 있는 검정빛의 돌무덤 그리고 토양에서 느끼는 자연의 갈색은 옛 제주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40×31cm 옛 정취



[그림4] 사철 푸르름을 볼 수 있는 제주, 사철나무 울타리와 누른 풀빛의 조화 그리고 갈색톤의 통나무와 수레는 겨울을 향한 채비를 서두르는 듯 하다.

40×31cm 출발을 위한 준비

[그림5] 초록빛 초원이나 바다 역시 태양빛의 과다나 그 밖의 기상조건에 따라 같은 곳이라도 여러가지 색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척 화창한 날 뭉게구름이 피어 오르는 정오 즈음 바다를 바라 보았다. 그 바다는 그 어느날 보다도 더욱 질푸르게 느껴졌고 물빛은 노오란 연두빛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발하고 있었다.



40X31cm 기다림



40×31cm 여유

[그림6] 성산일출봉에 올라 내려다 보는 바다는 인간을 상념들로 채우게 한다. 돌계단을 따라 오르고 오르며 잠시의 휴식을 위해 쉼터에 앉아 내려다 보는 바다는 평화롭기 그지 없다. 때로는 옥빛으로 때로는 질푸른 남빛 물결이 어느 때는 흰빛 잉어 떼의 움직임 처럼 반짝이는 물빛이 아름답기 그지 없다.

[그림7] 찾는 이 없는 해안선, 돌담과 통나무 만이 지난 여름을 회고하는 듯 하다. 앞은 바다 물빛이 흰 모래에 투영되어 옥색빛을 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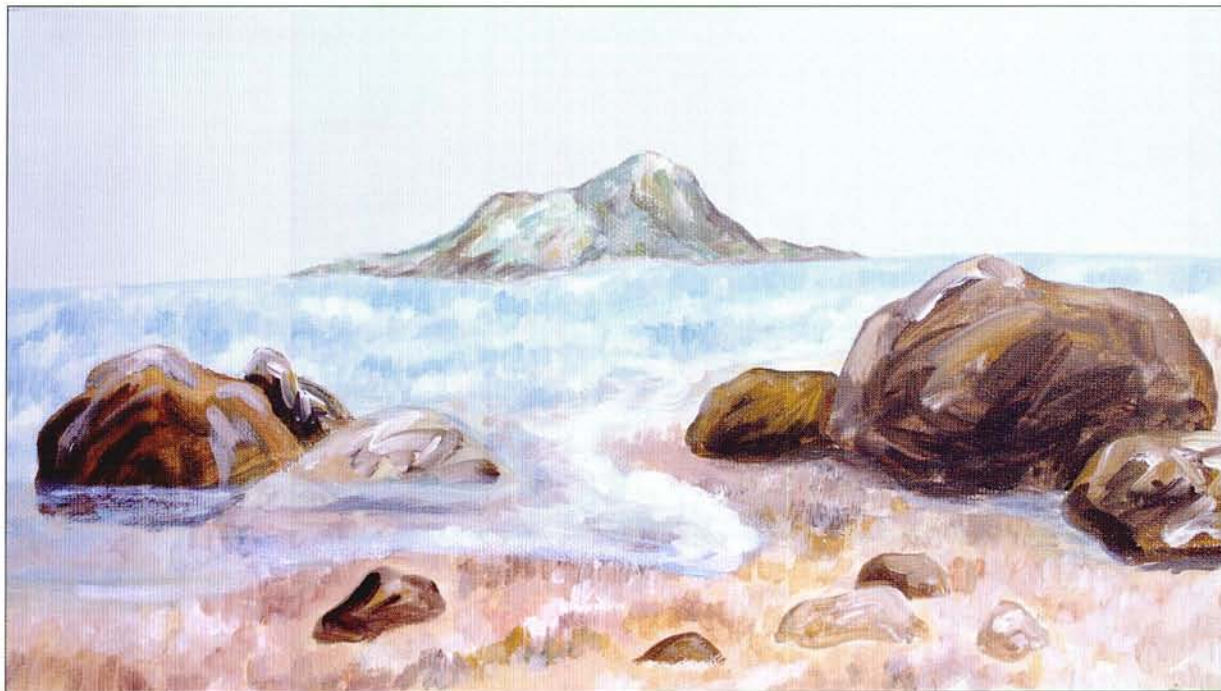
40×31cm 겨울 서정



[그림8] 바다 건너에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섭지코지의 유채, 노오란 유채꽃이 흐린 날의 성산의 녹빛과 쓸쓸히 느껴지는 바다의 색들을 감싸 안는 듯 하다. 바다는 이렇게 여러 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40×31cm 유채가 보이는 바다

[그림9] 협재와 관지해수욕장에서 바라다 보는 비양도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소박한 어촌 풍경을 연상케 한다. 흰 모래에 비춰진 바다는 우리에게 에머랄드
빛 물결을 선사하고 있다.



32×18cm 비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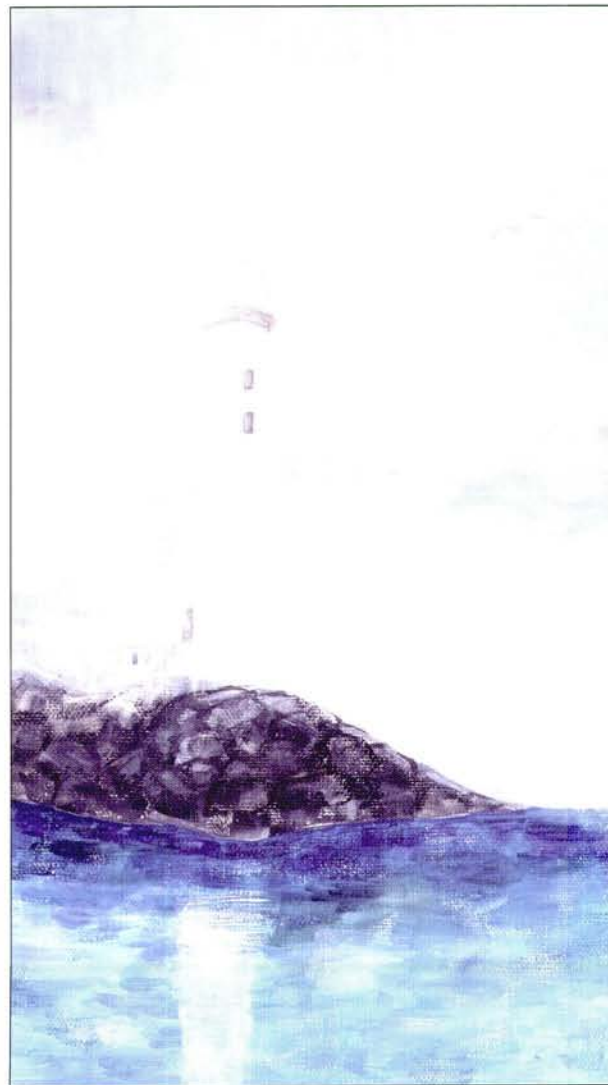


[그림10] 제주는 관광지에 걸맞게 어디로든 길이 쪽쪽 뻗어나 있다. 봄이면 노란 유채가 여행객을 반기고 머지않아 곧 연두빛을 발해 숲이나 초원과 연계하게 된다.

23×23cm 행로

[그림11] 등대는 불빛도 밝혀 주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유라는 마음의 빛도 밝혀 주는 것 같아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

구름이 대이동을 서두르고 있는 아침, 포구에 들렀다. 에머랄드 빛 바다까지 구름에 출렁이는 듯 했다. 검은빛 암석이 비춰진 부분은 얇은 바다이건만 검푸른 빛을 자아낸다.



18×32cm 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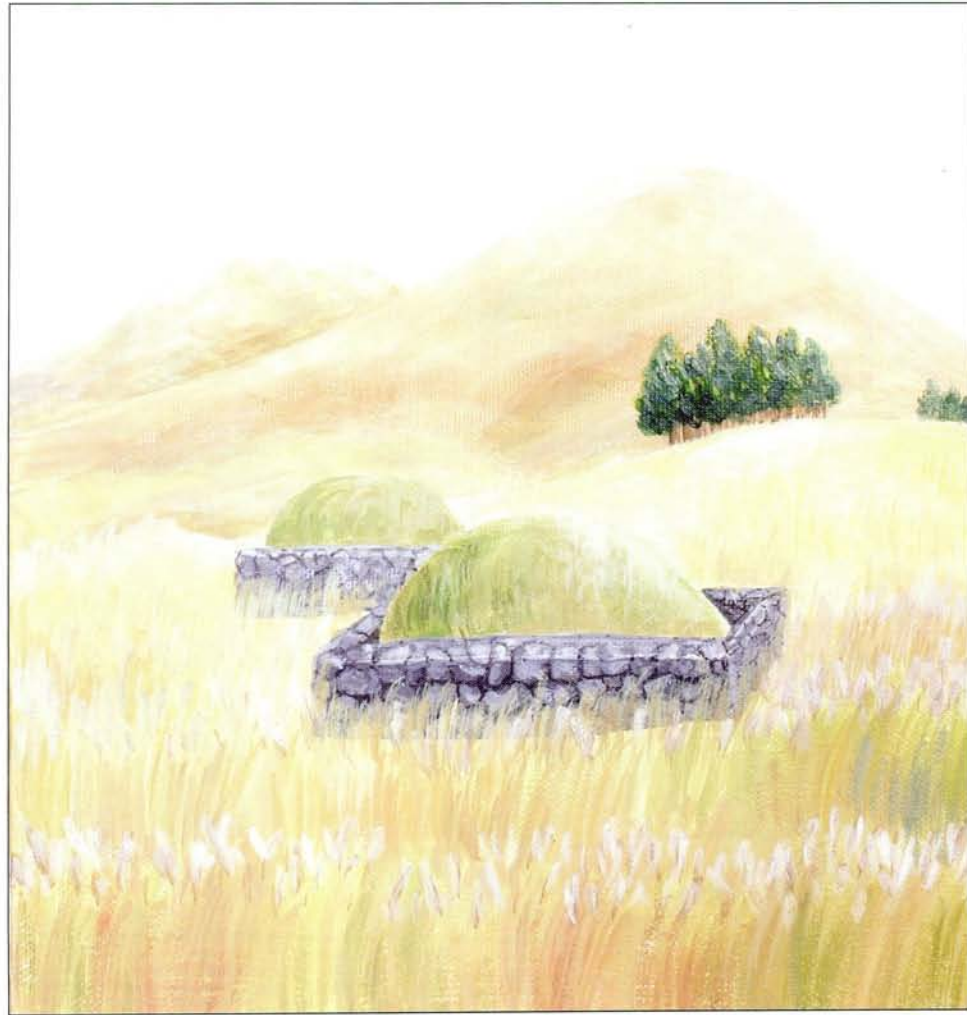
18×32cm 봄의 소리

[그림12] 겨울잠을 잔 관목들이 봄기운을 받아 가지개를 켜는 듯 하다. 겨울 공기가 채 가시기 전 숲은 초록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림13] 벚꽃은 꽃잎이 진 후 잎새가 피어난다. 짧은 시간 화려하게 핀 꽃잎들이 녹색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초록빛 물결은 자연 속에 우리가 하나라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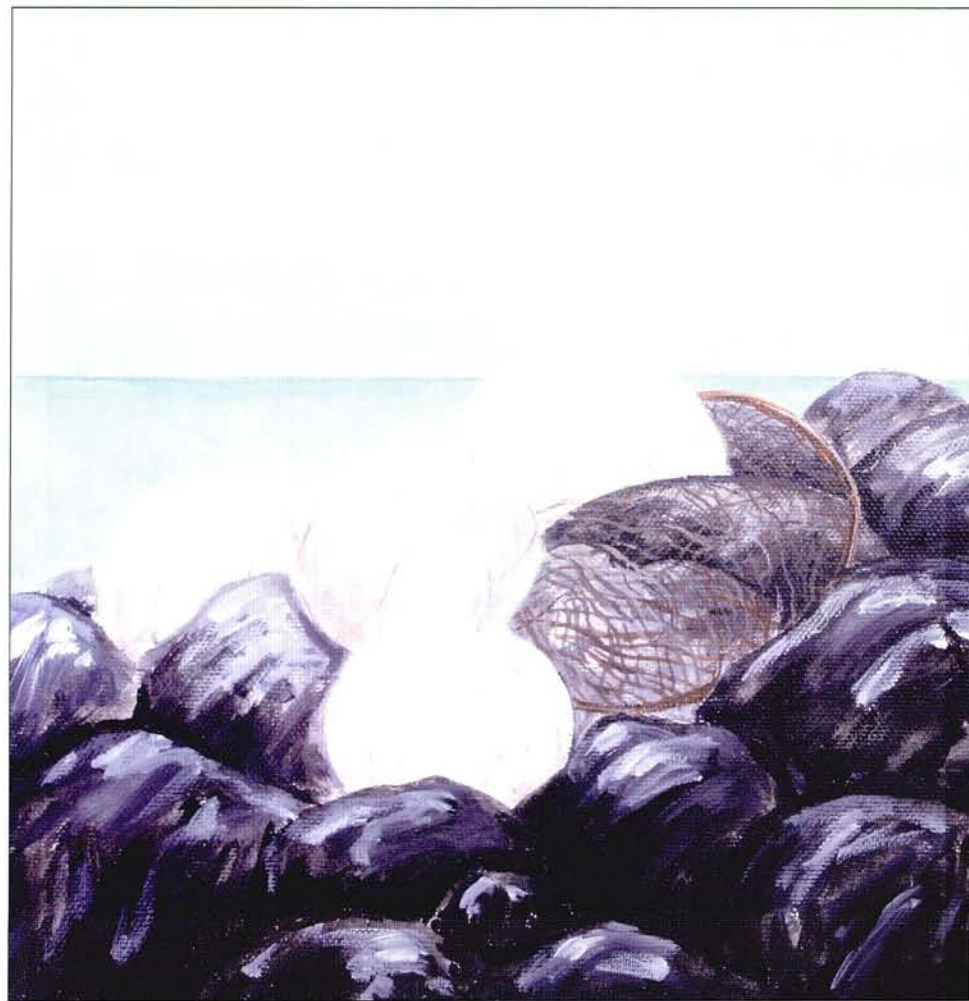
40×31cm 숲의 조화



[그림14] 뿔내지 않는 소박하고 너그러운 자태를 지닌 오름들, 그리고 거센 바람 속에서도 꽃
꽂이 생명력을 키워가는 역사물..
그 속에서 인간이라면 꼭 가야만 하는 마지막 안식처..

23×23cm 가야 할 길

[그림15] 섬 어미를 가나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바위들
그것은 바다내음과 더불어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검은빛 바위에 놓여 있는 태왁은 해녀
의 삶 속에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23×23cm 해녀의 삶 속에서



23×23cm 갈옷을 위한 준비

[그림16] 갈옷에 스며 있는 빛깔은 곱진 않지만 투박하고 거친 듯 하면서 정이 있는 제주인들의 색을 느낄 수 있다.

- 
- A painting of a golden landscape with rolling hills and a path. The scene is bathed in warm, golden light, suggesting a sunrise or sunset. The hills are rendered with soft, textured brushstrokes, and a path winds through the valley. The overall mood is serene and peaceful.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 미국 North Seattle Community College 수학
 - 올림전 및 역음전 다수 출품
 - E-mail : kcs217@hanmail.net